

## 「집에 들어가시니」

- 29.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 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 31.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가복음 1: 29-31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배워봅시다.

29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곧」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토요일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네 제자들도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위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놀라고, 더러운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는 등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덤벼드는 귀신들을 예수님께서서는 꾸짖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것이 또한 사람들을 놀랄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가버나움 회당을 뒤로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29절)

「시몬」은 본명이며,

후에 예수님께서 닉네임으로 「베드로」라고 지어주시는데, 이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예배가 끝나면, 점심때 친구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즐겼습니다.(신명기 12장)

이 날, 식사에 초대된 사람은 시몬과 안드레이고,

초대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서

시몬과 안드레집에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가보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마가 1:30)

여기에 베드로의 가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한테는 부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후에 베드로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자 전도사와 같은 사역을 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여성 크리스찬들을 섬기며 베드로를 돕다, 로마에서 순교하는 베드로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부인의 어머니가 있고, 이 때 베드로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핵가족이 일반적이지 않았기에,  
베드로의 부모님과 베드로 부인의 부모님이 모두 사이 좋게 함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한 구절에서 이 집은 「안드레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가족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면 모두 함께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한 사람이 병이 나면 가족 모두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보다 자세히,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4:38)  
보통 열이 아니라 매우 높은 열병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리아였는지, 아니면 나이드신 분들이 걸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폐렴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일어나 대접할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알렸던 것」 입니다. (마가 1:30)  
힘들어하는 모습이 가없으니, 어떻게든 도와 주십시오, 라는 뜻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보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31절)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렸습니다.  
그토록 심한 고열이 한 순간에 내려갔습니다.  
병이 나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시몬의 장모는, 그냥 우연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낮게 해주셨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면, 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기보다, 원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26)

하나님은 사람을 병이 들게도, 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세상을 만드시고, 병을 고치시고,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을 고치는 것은 실은 하나님 당신이 항상 평상시부터 하고 계신 일이십니다.

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병이 회복이 안된다면, 지금 이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암 전문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의 치유력입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돕는 것뿐입니다.

몸을 절개해 봉합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붙지 않으면 회복이 안됩니다.

출혈이 멈추고 상처가 아물고, 조직이 재생되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자연치유나 의사, 약, 혹은 훌륭한 건강식품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이세상에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쳐주심」 이라는 것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열병으로 괴로워하는 시몬의 장모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녀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주가 고쳐주시는 주의 사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병에 걸렸지만, 병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병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병이 낫게 됐다하더라도, 주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모르는 고독한 외로운 인생입니다.

누구한테나 병은 절실한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병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떤 설명도 필요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직접 오셔서,  
그때에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뿔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 (이사야 35:4-6)

병 고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죄사함」이고,

더 나아가 그 결과로서 「저주와 멸망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고침을 받은 그 발로 「뿔것이며」, 그 입으로 「노래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기쁨입니다.

죄사함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된 자가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경우, 열이 내리고 낮게 된 그 몸으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열에 시달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몸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분」 이시지만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와 주십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생선 비린내 나는 집에도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아무일도 못하고 누워있음에도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지독한 고열로 빈사상태인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돌아봐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요컨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멸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눈 앞에 나타나셔서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강하게 우리의 손을 잡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시몬의 장모한테는 자신앞에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세워주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 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지금까지 본적도, 들어본적도 없는 새롭고 빛이 찬란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의 장모는, 고쳐주신 그 몸으로 그들을 수종든 것입니다.

기쁘게 대접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으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곧」이라는 말이 더해져 있는데, 그때의 그의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도, 병 자체는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참한 일입니다.

심한 열병을 앓아 병상에서 일어날수도 없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의사도 포기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이유로,

자업자득이다, 건강에 신경쓰지 않은 부주의다, 내 죄가 재앙을 불렀다 등등,

어떤거든 짐작이 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같은 우리들이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와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나이든 시몬의 장모도 ,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곳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 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몬의 장모한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 여기에 함께 성경을 배우는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삶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도와 주십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길 바랍니다.